

사이버대학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quality of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이 문 속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YI Moun-souk

Seoul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 대한 2차년도 연구로(2014년도 연구 :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그들의 필요), 전체 온라인 대학교 중 가장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그들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융화하면 살아가는데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생활의 질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를 찾아보려는 일련의 시도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을 택해 15여명의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I. 서론

1998년 이래 2015년 12월 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이탈주민의 누적 수는 28,795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북한사회에서와 탈북의 과정에서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한 자들이다. 본 연구는 그들이 남한사회로 유입된 이후 그들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융화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생활의 질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를 찾아보려는 일련의 시도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을 택해 15여명의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주요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육 경험이 있었거나 교육 중인 전체 15명의 여학생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또는 연구를 일반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최대화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유의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이버대학교와 2개 이상의 타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1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달 간 진행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룹 설문조사와 그들 자신의 개념과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5명의 사전 인터뷰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된 내용을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필사된 내용과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내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들을 공통된 주제별로 묶어 따로 정리하였으며, 도출된 주제들을 비교분석하여 관련된 주제들과 구분되는 주제 등을 분리시켜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III. 사이버대학교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기존의 참고자료와 인터뷰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와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감에 더하여 부모세대가 남한출신으로 부모의 권유가 크게 작동하여 탈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남한에서의 삶에 대부분은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심층 면담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직업과 관련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한지 6~10년 정도 된 이들은 생활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남한사회에 유입된지 얼마 안 되는 이들(0~3·4년)과 비교하면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한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의·식·주 면에서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인터뷰의 결과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은 하나원 출신의 선배들로부터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이 필요하고, 북한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 정도를 이수했다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한편, 학업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이 직업의 선택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음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넷째,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월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200~300만원을 얘기하고 있으나, 월 소득이 그 액수에 이르는 졸업생 혹은 재학생은, 남한사회로 유입된 햇수, 학력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의 취미/여가생활의 대부분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등산, 운동 등이었으며, 여가/문화활동의 경우 신문일기/독서, TV시청, 영화관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가정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으로, 기본적인 것(예 : TV, 냉장고, 컴퓨터, 김치냉장고 등)은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생활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앞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이 남한사회에서 융화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생활의 질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구조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강보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7집, pp. 127~152.
- [2] 박성정, 오은진 “북한이탈여성의 직업훈련경험과 개선 과제”, 직업교육연구, 제31권, 4호, 2012
- [3] 정진화(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과 취업”,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pp. 267~295, 2013
- [4] 조영달, 질적연구방법론, 근사, 서울, 2015.
- [5] Catherine Meyor, “Le sens et la valeur de l’approche

phénoménologique,” Recherches Qualitatives, Hors Série, No4, pp.103~118, 2007.